

# 고려말 불교 서사물 유교적 가치관 제어기능

## 고전문학회 '국문학과 불교' 학술회의

한국고전문학회(회장 서대석)가 '문학의 해'를 맞아 '국문학과 불교'라는 주제로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 불교문학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고려말의 시대적 배경과 사대부, 그리고 그 시대의 불교를 △불교사상과 소설미학 △서말 유학자들과 불교와의 관계 △항가와 불교 등 3가지 주제.

이강욱교수(영남대)는 '세속적 삶의 두 모습과 그것의 극복방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불교계 설화에 나타난 세속적 삶에 대한 시선과 그것의 극복방식은 서사문학의 체계화와 문학사적으로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불경이나 불교계 문헌들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과 수양이나 신앙체험에서 형성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세속적 삶의 질서와 그 가치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깨달음이

나 해탈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가'와 '가족관계의 가치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의 궁극적 이탈을 지향하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이

나 해탈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가'와 '가족관계의 가치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의 궁극적 이탈을 지향하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결국 이들 불교계 서사물들은 세속과 그것의 초월이란 문제를 작품의 중심부에 놓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사해남정기>와 <구운몽>의 비교는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당시의 삶에 대한 가치기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세속적 삶의 무반성적인 <사해남정기>와 삶 자체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려는 <구운

몽>은 당시 사대부들의 이념적 태도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이교수는 설명했다. 이는 유병환교수(공주대)가 '구운몽의 불교사상과 소설미학'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불교사상의 허구화를

통한 소설창작과도 무관치 않다. 유교수는 <구운몽>에서 나타난 수많은 대용과 상징, 복선의 기법들은 모두 연기(緣起)와 공(空)이라는 불교사상의 양대 부문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심오한 불교사상을 어떻게 소설의 주제로 차용해 허구화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노년기에 접어든 사대부들의 유교적 시각을 뛰어넘은 불교적 관점의 세속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에 대한 극복방법을 찾기 위한 사상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유교개혁기인 고려말 사대부와 불교와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전수연교수(안동대)는 '여말 사대부와 불교'라는 발표에서 여말 사대부에게는 승려들과 교유한 시문, 비문, 각종 도량의 소문, 불교비판의



한국고전문학회는 지난 7·8일 이틀간 해인사 총재실에서 학술회의를 개최. 불교가 국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가를 집중 조망했다.

글 등 불교관련 글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일표교수(홍익대)는 '여말 유학자의 불교 관련 시 연구'에서 무신장관 이후 음산시(音韻詩)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四韻詩를 중심으로 한 찬불 유행의 시가 성행한 것은 당시 사대부들의 '외儒내佛'의 절충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교적인 시가 이념적으로 내용이 충실한 면을 보인 반면 불교적인 시는 내면을 전하는 시로 발전되었고 때로는 불교의 교리와 인간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는 시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 사대부 찬불시 外儒心佛 세계관 잘 표현 불교설화 세속 삶 극복 서사문학 체계화

## 불교 우주관 토대 '삶의 내면' 추구

### '고운 최치원과 한국사상' 주제 학술회의



고운 최치원



김석학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최치원의 사상과 업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고운 최치원과 한국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유교사상연구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김중렬교수(군산대)는 '고운 최치원의 문헌사상에 관한 연구-그의 시에 나타난 사상을 중심으로'라는 논문발표를 통해 고운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이해와 학식이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불교가 이미 그의 성격이나 생활속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김교수는 사산비명과 '증희랑화상(贈希朗和尚)'이라는 여섯 수의 시를 예로 들었다. 왕이 존경하는 국사(國師)의 비명을

짓는데 승려가 아닌 유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고운이 선택됐다는 점은 그의 문재(文才)와 함께 불교에 대한 그의 사상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 여섯 수중 특히 '증희랑화상(贈希朗和尚)'과 '기호원상인(寄鶴原上人)'의 두 수는 불교고운의 사상과 융합해 표현된 도와 화가 함께 고도의 경지에 도달해 승화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김교수는 설명했다. 또 '우정야우(郵亭夜雨)'는

해시킨 최치원 문학의 정수라고 규정지었다. 유교수는 또 진감비명(眞鑑碑銘) 속사산비명(素山碑銘) 남해비명(南海碑銘) 등 사산비명과 최후의 창후전집(昌後傳集), 해운비명주(海雲碑銘) 등 13종의 비명(碑銘)을 설명하면서 사산비명은 당시 선인들의 삶을 사후(死後)에 글자와 여섯 글자로 구성된 대구(對句)라는 형식을 통해 생동감있게 표현한 금석학의 백미라고 설명했다.

(우)



한국의 사찰의 주련

권영한

대승사

대웅전

楊柳柳頭甘露澤 (양류추두감로택)  
蓮華香裏碧波寒 (연화향리벽파한)  
七寶池中漂玉子 (칠보지중표옥자)  
九龍口裡浴金山 (구룡구리욕금산)

고 명명스님에게 절의 창건을 하게 했다는 것이 사찰장건 배경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대승사 대웅전의 주련 내용도 부처님을 찬탄하는 극치의 시어대로 엮여져 있다. 첫 연에서의 불가사의한 장면 묘사는 버들이 머리를 감을만큼 많은 양의 갈수로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둘째 연도 마찬가지로 백택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꽃 향기와 푸른 파도의 대조는 대조의 경치를 넘어 일체만물의 합일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칠보 연기에 옥동자를 띄운다는 불가해의 장면도 부처님의 위대한 범의 세계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넷째연에서도 불가해의 세계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양의 장면이 보인다. 아홉

## 일체만물 합일된 초탈경지 표현

버들로 머리 감고 감로를 뿌리고 연꽃 향기속에 푸른 파도가 서늘하게 칠보 연못에 옥동자를 띄우고 아홉 용이 입으로 금빛선을 목욕 시키네.

마리의 용이 금빛 부처님을 목욕 시키는 경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갖는 신성성과 부처님을 극존칭으로 형상화한 금선의 절대성이 어우러져 목욕을 시킨다는 행동으로 상상을 현실화시킨 초탈한 표현 앞에서 우리는 짜릿한 법안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대승사(大乘寺)는 경북 문경의 사찰산에 있는 절로 신라 진평왕 9년(587)에 명명스님이 창건한 고찰이다. 이 산이 사찰산(四佛山)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산마루에 사면석불상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도 이 석불이 있다. 신라 진평왕 9년에 이 불상이 비단보자기에 싸여 하늘에서 떨어지니 왕이 직접 찾아와 예배를 드리

그러니까 이 주련은 불가사의 세계를 부처님이라는 절대적인 법의 상징 속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구별하지 않고 모든 개체의 합일과 분리 자체가 하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 "신라, 복속민 교화에 불교 활용"

### 경주대 김창호교수 주장

신라는 새로 편입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지배와 신심 공세에 불교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돼 흥미를 끌고 있다. 김창호교수(경주대)는 최근 고신라의 주변지역 통치와 불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고신라의 불교 관련 금석문'이란 주제의 논문에서 '율주 천전리서석 율묘명' '진흥왕 순수비' '대구 무술명오각비' 등 고신라의 불교관련 금석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구려 출신의 승려로 신라가 새로 정복한 고구려의 옛땅에 살던 백성들의 정신적 지배에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대구 무술명오각비에 나오는 두 승려는 수리시설과 관련된 제방의 축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되며 이들은 당시 대구지역에 신라에 복속되고 나서 민심을 얻음과 동시에 승려를 통해 지방민을 정신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신라인으로 만드는 데에 중요한 몫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산 마운령 황초동 등 3곳의 진흥왕순수비는 모두 568년 고구려에서 신라에 편입된 영토에 세워진 것으로 순수비에 나오는 도인들은 고

이런이후 7년 '보르헤스의 불교강의'와 '나의 수행일기'는 기사 넘쳐 쓴다. '소설 수미산'은 7면에 실립니다.

## 교단 권위 약화... 종교활동 국제화 성직자 일반신도 구별도 불분명

### 日 우에노교수 '정보화시대 종교' 논문 주목

정보화 사회에서 종교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논문이 일본에서 발표돼 종교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국학원대학 이노우에교수가 지난달 21일 일본 국학원대학 일본문화연구소의 '국제화와 민족문화'를 주제로 개최한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정보화시대와 종교의 국제화'가 그것. 이노우에교수는 논문에서 정

보의 전달범위와 수단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지금까지의 역사 전통 종교의 행태가 크게 변모한다"고 지적하고 조직, 활동, 지적(知的)상황의 3가지 측면에서 종교단체의 변화를 예측했다.

먼저 종교단체는 조직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상호유기적 관계를 갖게되며 네트워크형 또는 다국적 조직체로 발전한다. 또한 개인의

가 되어 교단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약해지고 정보의 통합이 어려워진다고 예측했다. 또한 성직자와 일반신도 잠재적 신도와의 구별이 약해지는 것도 정보화 사회의 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종교를 비롯하여 정보문화와 가족공동체의 측면에서 국제화가 민족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남수미 기자

아바타 코스

# 一切唯心造

(뜻대로 사는 길)

## 어떤 관점

세상의 모든 이가 당신의 일부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일부여서 당신의 모든 판단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고 당신의 모든 비평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될 조건을 당신 스스로 멋지게 키울 것입니다.

지금 국내외에서 구도자들은 물론 정신세계(정신), 철학, 4차원 세계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생명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닌 확실한 법안이 여기 있습니다. 아바타 코스에 어떤 신념이 내 이념도 요구하지 않으며, 더구나 죄를 짓는 법도 없습니다. 미스터와 할기시 시에 대해서도 거의 필요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마법도 있을 수 없으며 이곳에서는 모든 종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교를 더욱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는 구도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소원도 제시된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 보면 '아바타 코스' 중점 가지도 특별 세미나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는 경청을 해야 하며, 이 코스에서는 공개강좌와 비공개강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날 그날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날 그날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날 그날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바타 코스 문의  
☎ (0631) 78-5161  
☎ 012-634-5161

편안 욕망이 사라진 인생  
대탈출 코스를 찾으신다면  
이런 아바타 코스에 동참하십시오.

## I. 大學基本課程 : 초기불교부 특강 및 대승불교부 36강 강의

# 佛敎思想講座

- 강의일시: 2540('96)년 3월 5일개강, 제135주 금,토강의 금: 19:00-21:00
- 법사: 최봉수박사(동국대학교, 불교원전번역연구소장) 토: 15:30-17:30
- \*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에 문의(043-237-4438/9)

\* 초기불교부 특강

- 원시불교 자료의 오대(五大) 영역
- 원시불교 교육의 방법론적 이념으로서의 집교성(集敎性)
- 원시불교의 오안설(五眼說)
- 우주 및 역사적개념의 원시불교적 동인(動因)으로서의 업(業)
- 원시불교의 공제(空界)에 대한 일교관
- 원시불교 깨달음의 구조

A. 반야(般若)부

- 원시불교와 대승불교
- 중생즉불(衆生卽佛)의 도덕적인 명제
- 일반의 한계와 자성(自性)의 부정
- 존재와 비(非), 무(無), 공(空)
- 방법으로서의 반야(般若)
- 목표로서의 반야바라밀다
- 피안(彼岸)의 보리와 공성(空性)의 체득
- 보살사자와 구경열반의 구조
- 사자연기(四支緣起)의 우회적 선언
- 가테(Gate) 가테 파라가테(Param Gate)

B. 법화(法華)부

- 반야와 법화
- 방편즉보리(方便卽菩提)의 참뜻
- 수기(授記)의 방식과 목적
- 회향(廻向)의 이유와 논리

15. 다보미래(多寶未來)의 출현

16. 오탁약제(五濁惡世)와 여(如)의 세계

17. 십여사(十如是)와 여의 세계

18. 여래신초(如來十號)와 여의 세계

19. 십팔불공법(十八佛共法)의 뜻

20. 비(悲)와 대비(大悲)

C. 화엄(華嚴)부 십주경(十住經)

- 화엄지(歡喜地) 십대대승 세움
- 이구지(離塵地) 십승도를 행함
- 발광지(發光地) 삼법도를 관함
- 염해지(焰慧地) 삼십이도품
- 난승지(難勝地) 십이정도를 관함
- 현전지(現前地) 십이緣起를 관함
- 원행지(遠行地) 십대대승을 닦음
- 부동지(不動地) 무생法을 얻음
- 선제지(善慧地) 사무礙를 얻음
- 법음지(法雲地) 보살과 붓다
- 정토(淨土)부
- 극한 사랑과 범부(凡夫)의식
- 극한 경도와 향생(往生)
- 아미타불과 본원력(本願力)
- 아미타불과 법보(念佛)와 안식(安息)
- 자력(自力)과 타력(他力)
- 일불승(一佛乘)의 보살도(菩薩道)
- \* 출결론

I. 大學院專攻課程 : 80화엄경 및 화엄론 40권 종합강의

# 華嚴經大講座

- 강의일시: 2540('96)년 3월 8일개강, 제24주 금,토강의 금: 19:00-21:00
- 법사: 각성근스님(삼일선원, 삼일불교교육원장)토: 15:30-17:30
- \*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에 문의(043-237-4438/9)

財團 吞虛佛敎文化財團  
附設 三一禪院·三一佛敎敎育院  
(전철3호선 약수역 ☎ 237-4438-9)

##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 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화·수·목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 통신도 가능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특강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현대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국 하직이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110-320 서울시 중구 북원동 110 경향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건

구독신청문의	7	7	7
광고신청문의	3	3	3
	7	7	7
	1	1	1
	0	0	0
	6	6	6
	9	9	9
	7	2	3